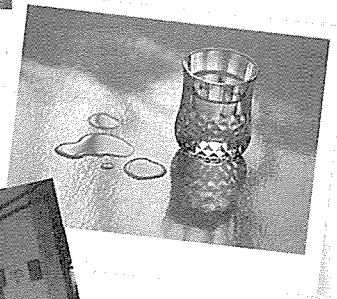




한 눈에 읽는

주요 환경뉴스

각 분야별 주요 환경뉴스를 한 눈에 보다 쉽게 전하는 미디어 섹션 페이지



NEWS ▶ ▶ ▶

지하철, 버스 실내공기질 규제방안 생긴다.

지하철 객차,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생긴다.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권고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2,500ppm, 미세먼지 200 $\mu\text{g}/\text{m}^3$ 을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각각 2,000ppm, 150 $\mu\text{g}/\text{m}^3$ 으로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차량의 공기조화시스템내 적정 필터를 사용하고, 신차 제작시 차량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500 $\mu\text{g}/\text{m}^3$ 이내로 규제한다.

수돗물 마음 놓고 마시도록 수질관리 강화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불신해소를 위한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안을 공포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대규모 다

중이용건축물과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은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할 날로부터 1년주기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결과 납, 아연, 동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급수관을 도포하거나 교체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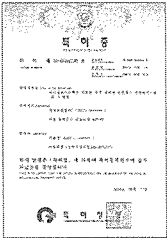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 상당수준 낮아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의 매연을 저감시키는 장치 부착사업 등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도에 보급된 42,153대의 저감장치와 금년도에 보급되는 저감장치에 의하여 금년 말경에는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수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소식

환경보전협회, 유역생태분야 특허 등록



환경보전협회는 지난 5월 22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유역생태계 복원정도 계량화시스템 및 그 방법』(특허등록번호 : 제 10 -

0584230, '06. 5. 22)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출원받아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한편 환경보전협회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그간 한강수계유역 매수토지 사후관리를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허 등록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유역생태계 복원정도 계량화시스템에 의하여 생태계 및 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복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 서울분회, '제11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한 "환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6월 5일(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민간환경단체 등 각계 인사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었다.

UN은 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의지를 드높이고자 매년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기념식을 갖는 한편, 6월을 환경의 달로 정해 환경보전 캠페인 등 각종 환경행사를 전개해 오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 주제를 '환경과 건강', 슬로건을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로 정했다. 최근 웰빙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파급되어 감에 따라, 금년을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언하고 환경보건증진법안 제정, 환경보건연구센터 설치 등 국민 건강 중심의 환경보건정책을 본격 출범시킨 정부의 의지를 환경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경보전에 공이 큰 각계인사 31명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보전협회, 한강 상수원 수증정화활동 실시



제11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과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에서는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특전사와 합동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팔당댐하류 상수원보호구역(팔당대교~잠실수증

보사이)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증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금번 정화활동은 특전사에서 전문 스쿠바 UDT 요원 등 일일 230여명이 동원되었다. 팔당댐하류 잠실상수원권역은 수도권 물 공급량의 56.6%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취수장으로는 암사 등 1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경기도 1,500만 수도권 시민에게 일일 446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간 한강유역환경청·환경보전협회에서는 2003년부터 한강 수증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증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매년 수증정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1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자, 환경부장관 표창 전수식



지난 6월 2일 환경보전협회 본회에서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평소 환경분야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활동한 환경보전 유공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 전수식이 있었다. 수상자로는 (주)차세대환경 안영찬 대표, 창신기계제작소 김유학 대표, (주)삼진정밀 이준태 부사장, (주)월드이노텍 이홍재 이사,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 발전본부 김득철, 환경보전협회 김원주 대리가 수상을 하였다.

환경보전협회 부산시지회 개정환경법 특별교육 및 환경 사랑 그림 전시회 개최



환경보전협회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정병호)는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실무 특별교육을 지난 5월 11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특별교육에는 회원사 및 유관기관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정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부산시지회에서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환경사랑 그림 전시회를 부산광역시 지하철연결통로에 6월 5일부터 10일까지 환경그림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50점을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방언론사 및 초·중·고 학생들과 부산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많은 관심과 어린 학생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그림을 통하여 한번 더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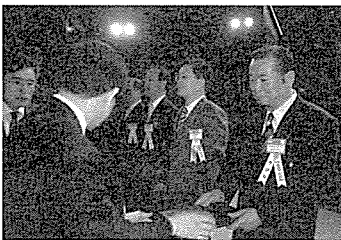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희태)에서는 지난 6월 5일 시민, 환경단체, 기업인, 환경기술인, 학생,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공동 주최로 제11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경관련 우수공무원 및 환경단체, 기업체 등에 표창을 수여 하였고, 이희태 지회장님은 기념사를 통해 환경보호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부터 경북대학교 산업현장 기술지원하라인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전반적인 사항으로 상담분야를 확대하여 기업체 부담 없이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산학협력의 내실화와 환경기술지도의 실효성 향상과 지역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 대통령상 수상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 金 容文)는 지난 6월 5일 제11회 환경의 날 유공자로써 대통령상을 수상 받았다. 대전·충남지회는 그간 지난 1993년부터 전국 최초로 배출업소 현장방문 기술지도와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아 왔으며, 아동환경체험시범학습코스 운영과 다채로운 홍보사업 등을 통하여 타

기관과 단체의 수범사례가 되었으며, 나아가 국가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제2기 환경봉사단』입단식



환경보전협회경기도지회(지회장 우봉제)에서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과 다채로운 환경테마행사를 수원시 야외음악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신창기 경기일보 대표, 유재우 경기도환경국장과 환경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주부, 학생 등 약 2,000여명의 도민이 참석하여 환경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식전행사와 환경분야의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표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제12회 경기 환경백일장 및 제11회 경기 환경그림대회는 초·중·고등학생 약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수원시 야외음악당)과 경기북부지역(고양시 일산호수공원)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지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된 『제2기 환경봉사단』의 입단식을 가졌다. 2006년도 환경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올해의 첫 활동으로 하천

정화활동 및 수변식물 심기를 의왕시 자연학습공원에서 실시하였다.

환경보전협회 충북지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환경 모범업체 견학 실시



환경보전협회충청북도지회(지회장이태호)에서는 지난 6월 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원종 충청북도지사, 장준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 기업체 임직원, 주부, 학생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MBC어린이 합창단의 환경노래 공연 등을 통해 환경보전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6월 13일 도내 배출업소 담당자, 관계기관담당자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 참관 및 모범업체[(주)진로 이천공장]견학을 하였다.

국 내 소 식

수돗물 마음 놓고 마시도록 수질 관리 강화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불신해소를 위한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안을 공포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과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은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할 날로부터 1년주기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결과 납, 아연, 동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급수관을 도포하거나 교체해야한다.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갱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 관리자 연 1회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수질기준 위반시 질산성 질소 기준 초과, 탁도 5 NTU 초과, 분원성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주민에게 라디오, 신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해마다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007년부터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2008년부터 연 1회 55개 전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있는 급수관, 수도꼭지 제품은 2009년 6월 30일까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예고함으로써 값싼 저질제품의 사용이 추방되고, 국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수도관리

업무를 5년이상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5년마다 위탁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급변 수도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속, 민간인도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孫熾晩) 경인 환경출장소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며 우수 기업체의 신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6.26일부터 6.30일까지 『악취 발생 특별대책지역』인 시화·반월공단지역 내의 폐기물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간인 일일 공무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시화·반월공단지역의 환경관리 실태를 살펴 보면 폐기물처리업소 63개소 중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청색사업장은 43개소 이고, 2년간 1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소는 13(전체대비 21%)개소 이다. 무엇보다 이번 에 실시되었던 『민간인 일일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평소에 알지 못했던 민·관, 민·민간의 정보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서로간 신뢰 구축과 근무분야 상호 이해도 증진 될 전망이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대상지역 및 대상사업장을 2007년부터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보

장과 함께 특별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 하였다.

지하철, 버스 실내공기질 규제방안 생긴다

지하철 객차,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생긴다. 환경부와 국회는 지난 6월 27일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관리상 문제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과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환경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올 하반기부터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이산화탄소 2,500ppm, 미세먼지 200 $\mu\text{g}/\text{m}^3$ 을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각각 2,000ppm, 150 $\mu\text{g}/\text{m}^3$ 으로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차량의 공기조화시스템내 적정 필터를 사용하고, 신차 제작시 차량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500 $\mu\text{g}/\text{m}^3$ 이내로 규제한다. 국회가 마련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는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관리지침을 정하여 사업자가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특별점검 결과 632곳 적발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16개

시·도시 건설공사장 등 11,129개소의 비산먼지를 특별점검한 결과, 63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지역은 인천 13.3%로 이는 서울 3.5%의 4배 수준이며, 대구 8.2%, 경기 8.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이 3.0%으로 가장 낮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광주 3.7%, 대전과 충북 각각 3.9%의 낮은 위반율을 보였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억 1400만원을 부과하고, 74개소는 고발 조치를 하였다.

또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6년 12월 30일부터 행정처분 위반시 현재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규정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 상당수 준 낮아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의 매연을 저감시키는 장치 부착사업 등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 오염농도가 크게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금년도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총 3,644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내 배출

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금년 초까지는 부진하였던 사업이 4월 20일 제도 개선 이후 5월 중순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추세는 더 지속된 후 높아진 보급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경유차에 보급하고 있는 DPP(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은 금년 1월부터 5월 12일까지는 290대로 매우 부진하였지만, 제도 개선 5월 12일 이후부터 3주간동안 1,082대가 부착되었고, 현재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내 매연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장치제작업체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성과이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제작업체에 의하면 LPG엔진 개조도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작년도에 보급된 42,153대의 저감장치와 금년도에 보급되는 저감장치에 의하여 금년 말경에는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수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 껌,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폐기물부담금 오른다

앞으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제품과 용기를 생산 수입·사업자들은 지금보다 평균 약 10배 인상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폐기물 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며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껌, 담배,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내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전환 예정),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이 개당 6~16원하던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24.9~84.3원, 당 30원하던 부동액은 189.8원, 갑당 7원하던 담배는 27.8원, 판매가(수입가)의 0.27%이던 껌은 1.8%로 인상된다. 부담금이 개당 1.2원하던 1회용 기저귀는 8.2원, 개당 1~4.5원하던 화장품용기는 8.3~25.5원, kg당 3.8원~7.6원하던 플라스틱 제품은 328원~384원으로 최고 86배까지 인상된다.

다만,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플라스틱 제품 중 실제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중간제품(제1차 플라스틱 제품)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통일했다. 또한 원료투입량(국산제품)과 수입가격(수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산출기준도 원료투입량으로 일원화하고, 플라스틱 원료를 연간 10톤 이하 사용하는 사업자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어 재활용이 약 110만톤정도로 늘어날 경우 연간 1조4천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의 봄, 남쪽보다 일찍 찾아온다

봄을 알리는 진달래가 남쪽이 아닌 서울에서 먼저 꽃을 피운다.

올해 진달래의 개화시기는 서울 남산이 4월 7일인데 비해 충북 월악산은 4월 20일이었다. 꽃이 떨어진 시점도 남산은 4월 12일, 월악산은 4월 29일이었다. 봄이 남쪽이 아닌 서울에 먼저 찾아오는 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은 도시의 열섬(heat island)현상이 원인이 되었다. < 열섬현상[heat island]이란? :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주거·상업·공업 시설 등이 늘어나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각종 인공열과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도시 상공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열섬현상이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04년부터 10년간 진행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1단계사업의 중간 결과를 통해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이루어진 1단계사업은 점봉산, 지리산, 남산, 월악산 등 육상 지역과 낙동강, 한강, 우포의 담수지역, 함평만의 연안지역 등 8개 지역을 선정해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도시지역의 토양이 산성화가 심화되어 수목에 피해를 줄 정도로 토양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현상을 파악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종 복원 및 멸종방지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소음으로 모텔 투숙객 감소... 피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76~80데시벨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모텔의 영업에 지

장을 준 시공사에 대하여 모텔 영업피해액 등 10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도로 확·포장 차량 통행이 불편해지고, 모텔 진입로 공사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되었으며, 또한 암석 파쇄 작업시 소음이 크게 발생하여 투숙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는 주변민가 등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피해 예방대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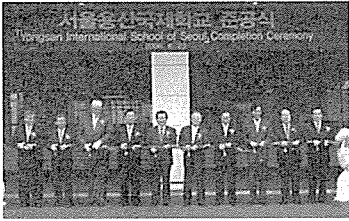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환경장학금 932백만원 지급

환경부는 환경장학금 932백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등 733명에게 지급하도록 맥도널드 등 5개 업체에 추천하였다. 이로써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지급된 환경장학금은 총 3,433백만원에 이르며 총 2,875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환경미화원 약 22,000명의 약 13%에 이르는 규모이다. 환경장학금의 재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회용 컵이나 봉투판매 보증금 미환불금 중에서 맥도널드 등 5개 후원사가 기부한 금액으로 마련하였다.

장학금의 규모는 대학생은 1인당 2백만원, 중고생은 1백만원이며, 맥도널드가 5억원, 롯데리아 3억원, 버거킹과 KFC가 각각 5천만원, 윌마트코리아 3천2백만원을 기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서울 용산국제학교 준공식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사장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서울용산국제학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인 자녀 교육환경이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자유치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용산국제학교가 준공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만 사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국제학교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 정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 투자촉진 차원에서 국제학교 건립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결실로 이번에 서울용산국제학교가 준공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의 학교부지 무상임대(7천여명)와 산업자원부의 건립비용 지원(100억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울용산국제학교는 오는 8월 정식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의 입학은 국제학교의 특성에 맞게 국내에 거주하는 세계 각국

의 모든 외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명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과과정은 영어를 비롯하여 과학, 수학, 문학 등 기본 과목 외에 컴퓨터 등 다양한 특별활동도 함께 제공할 것이며, 향후 AP나 IB 등 국제적으로 인 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세계 우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용산국제학교 준공식에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이명박 서울 특별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자,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Wayne Chumley AmCham 회장을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등 3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에서는 지난 6월 20일 기업관련 상속제도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윤장혁 화일전자(주)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의 사회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종범 교수는 우선 상속세 폐지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를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도를 개선할 여지는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개선방안으로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과세제도 개선, 상속세 항목별 포괄주의와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상속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권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반드시 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에서 시장에서의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그룹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반문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인해 웬만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주, 건물주, 식당 등 사업주는 대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면서 "상속세가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참여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업경영자로서 토론에 참석한 윤장혁 화일전자(주) 대표이사는 "중소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상속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현행 세제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상의 회원사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다.